

한러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엄구호(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발표 요지

한러정상회담의 목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구상과 푸틴 3기 신동방정책의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
- 경제적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WTO가입과 푸틴의 신동방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략적 공유 이익인 남북러3각협력을 포함한 러시아 극동개발에서의 협력과 현대화 부문의 협력 기반 마련

한러관계의 진단

- 한러관계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한반도의 문제를 신냉전의 미러구도에서 보는 시각이 강해서 정치적 의제가 북핵에 구속되는 경향이 강하고 경제적으로는 대규모 경협사업들이 남북관계에 구속되어 정부간 의제 합의 반복 현상 결과하는 것
- => 한러간 관계 피로감이 증폭되어 상호신뢰감이 저하되어 대규모 사업 합의가 어렵고 이것이 민간수준의 경제협력에 모멘텀을 제공 못함

한러경제협력의 진단

1. 푸틴 3기 러시아의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경제전망 어둡다. 따라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없이는 현 정부 기간의 한러경제협력은 정체될 가능성이 있음.
2. 투자협력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중일에 비해 심각) 투자 분야도 러시아 현대화를 지지못함으로써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함
3. 교역 규모 발전 속도도 느려지고 있으며 교역구조면에서 다양화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근본 원인.
4. 러시아 극동에서의 남북러3각협력의 경우 북한 리스크에 대한 국내 합의가 없어 진전이 되고 있지 못함

한러경제협력의 전략적 솔루션

1. 남북러3각 협력의 경우 러시아를 동북아 핵심국가로 포용하는 명확한 외교적 인식이 필요하며 남북관계를 독립변수로 보기보다는 종속변수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전략 필요. 다만 남북러3각 협력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긍정적 수단이 되도록 신중한 속도조절이 필요
 - 1) 철도-가스-전력망 사업은 효율성 측면에서 패키지로 추진하되 러시아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이고 보다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위해 양국의 국책연구소를 지정하여 공동 타당성 연구를 3년 정도의 시한을 가지고 추진
 - 2)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독립적인 러

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추진함. 예를 들어 극동의 한국의 경제특구조성과 연결 항만개발사업을 1단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현대화 협력의 경우 한러대학간 협력(특히 극동연방대학을 고려해볼 필요 있음)과 스킨코보 재단이나 나노재단 협력 기금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한러경제협력에 복핵 문제가 방해하지 않도록 복핵 이외의 지역적, 글로벌 수준의 정치 의제 개발.

1. 푸틴 3기 러시아 경제 전망 어둡다

- 지난 20년 동안 푸틴의 인기 비결은 경제적 성공. 거시적 펀더멘트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추세는 좋지 않음. 외환보유고가 5천억 달러에 가깝고(부록 1 참조) 국부펀드도 900억 달러에 이룸(부록 2 참조). 실업율도 5%대를 유지하고 있고(부록 4 참조) 인플레이도 CPI 기준 7%정도 유지.
- 그러나 최근 러시아 경제는 유럽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대외 수요 감소와 자동차 판매 급감 등 내수감소로 인한 영향 등으로 금년도 들어와 1/4분기 성장률이 1.6%로 떨어졌고([표 1] 참조) 연간으로는 2%중반에 그칠 것으로 러정부와 국내외 기관이 전망.
- 외환보유고는 2013년 6월 1일 현재 473,393백만 달러로 2013년 1월 1일 486,578백만 달러보다는 줄었음. 종합주가지수도 2013년 2월 1625에서 현재는 1275로 내려갔음(부록 3 참조).

[표 1] 러시아 경제성장 추세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2013년 6월 현재)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1/4	2/4
실질 GDP 성장률	5.6	7.8	4.3	4.3	3.4	4.9	4.0	2.9	2.1	1.6	1.9
산업생산 성장률	2.1	9.3	8.2	4.7	2.6	4.0	2.3	2.5	1.7	0.0	0.3
고정자본투자 증가율	9.8	16.2	6.0	8.3	6.7	16.5	10.2	7.3	1.3	0.1	△1.7
소매거래량 증가율	13.0	4.9	6.3	7.0	5.9	7.9	7.0	4.8	4.5	4.0	3.5

- 석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이상일 때 석유가격 ±10달러는 GDP의 ±1% 영향을 미칠만큼 자원의존형 러시아 경제의 거시적 리스크는 항상 존재.
- 평균 성장 7%였던 1999-2008년 러시아 경제 황금 시기를 이끈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 1990년대 주요 성장 동인은 구조 개혁, 50% 원유생산 증대, 석유가격의 5배 인상, 국제 통화환경의 안정 영향. 뒤의 세 가지 요인은 지금은 생각하기 어려움. 따라서 푸틴 3기는 능률을 증대하고 부패를 줄이는 구조 개혁 회귀 필요. 이것은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분권화된 정치 경제 시스템 요구-푸틴이 그의 집권 10년 동안 만든 것과는 완전히 다름.
- [그림 1] EBRD의 체제전환지수에서 보듯이 러시아는 거버넌스와 기업구조조정은 최근 5년째 2.3점에 머무르고 있음(4점 만점에 1점이 계획경제 수준, 4점이 선진국 수준).

[그림 1] EBRD Transition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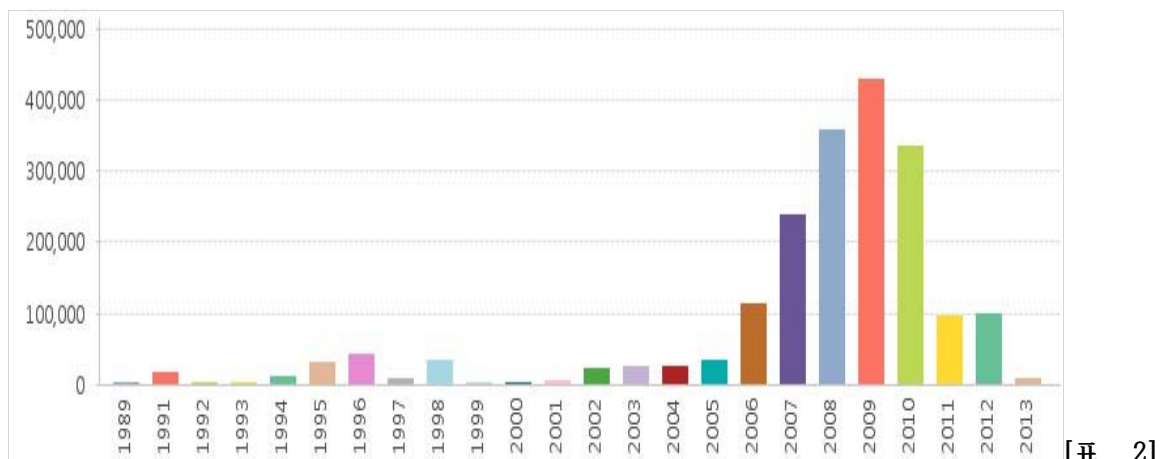
■ 성장과 민주화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푸틴 3기 정부에 있는지는 의문.

- 현대화에 따라 러시아 국민들은 더 부자가 되기 때문에 더 좋고 더 다원적인 거버넌스와 더 나은 사회공공재의 효과적 전달을 더 요구하기 시작.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중산층의 성장을 가져 온 것이 푸틴 시기의 번영이었고 지금 대통령은 그의 역동적 사회계급의 요구를 설명하기 위해 적응할 필요. 요약하면 푸틴은 그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 경제 성장을 필요로 함. 그 성장을 얻는 것은 주요 개혁을 요구할 것이고 성장의 결과는 정치 사회개혁에 대한 더 많은 국민의 요구일 것임.

2. 시장 실패적 요인이 교역과 투자 활성화 방해

■ 대러 투자 면에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일본은 오히려 최근 급증하는 추세임. 러시아의 대한민국 투자도 도소매업 투자 정도의 초보수준으로 투자 누계액은 4천8백만달러에 불과함.

[그림 1] 한국의 대러 투자 금액 (신고금액 기준, 2013년 7월 현재)



[표 2]

한일의 대리 투자 추이(단위: 백만 USD)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일본	95	160	99	306	391	350	339	757
한국	7.2	11.7	22.3	23.8	20.3	24.4	26.4	23.1

- 투자분야는 제조업이 11.6억불(143건)을 기록해 60% 차지하며, 그 뒤를 도매·소매업(2.4억 불, 12.5%), 광업(1.5억불, 7.6%) 등이 차지함(부록 8 참조). 추이는 제조업과 광업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나 나머지 분야는 정체 상태임.
- 한국의 대리 투자를 제조업종별로 보면 현대 자동차의 상트페트르부르크 투자가 4억달러로 비중이 제일 높고 전자가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투자로 두 번째 비중. 그러나 전자의 경우 전체 평균인 24.9%보다 작은 18%에 불과하며, 식품, 담배 등의 비중이 평균보다 매우 높음([표 3] 참조). 현재 한국의 투자가 러시아 현대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3] 한국의 대리 제조업종별 투자액 비중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리FDI 서 비중	전체 FDI서 비중
식품	61.1	75.0	44.9	2.3	4.6	0.2	0.3	11.2	3.8
담배	-	-	-	0.4	12.0	20.7	24.1	9.1	0.3
목재가공	1.3	-	-	0.1	-	0.1	-	1.6	0.6
석유가공	-	-	-	-	-	-	-	1.7	1.1
일차광물	-	-	-	-	-	-	-	2.1	8.8
전자	3.1	4.3	8.0	43.4	27.3	0.2	1.6	18.0	24.9
전기장비	29.1	7.0	36.6	-	14.2	-	0.1	8.6	3.1
기계제작	-	-	-	0.0	-	0.9	26.5	-	4.5
자동차	-	-	-	52.2	37.8	76.4	27.2	42.2	14.8
합성수지, 고무	-	1.5	-	-	-	-	8.1	-	2.5
기타	5.5	12.2	0.7	1.6	0.2	0.7	1.2	5.6	35.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교역 면에서도 한·러 교역의 발전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으며([표 4] 참조) 이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부진함. 러·중 교역은 2011년 7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7% 증대하였고 2012년에는 880억 달러로 11% 증대하였음. 러·일 교역은 2011년에는 30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8% 증대하였고 2012년에는 334억 달러로 8.4% 증대하였음. [표 4]에서 보듯이 한러교역량의 증가율은 2012년에는 7.7%였고 금년도 5월까지의 증가율은 4.4%에 머무르고 있음.

[표 4] 최근 대리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1~7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수 출	10,305	32.8	11,097	7.7	6,570	1.3

수입	10,852	9.6	11,350	4.6	5,990	9.1
수지	-547	-74.3	-253	-53.7	580	1.1

- 교역 구조에서 수출의 경우 자동차 관련 품목이 비중이 약 60%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새로운 수출 품목 개발이 필요하며([표 5] 참조), 수입의 경우 대부분이 자원이고 공산품 수입이 거의 없어 러시아에게 매우 부정적 이미지를 줄 위험이 있음(부록 12 참조).

[표 5] 대 러 수출 30대 품목 년도별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2년			2013년(1-5월)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총 계	11,097	7.7	100	4,665	4.4	100
1	승용차	3,119	17	29.6	1,382	7.5	28.1
2	자동차부품	1,645	21.4	14.6	679	-3.1	14.8
3	건설중장비	477	3.5	5.9	273	24.4	4.3
4	합성수지	578	-1	5.0	232	-8.3	5.2
5	화물자동차	568	14.3	3.3	155	-31.6	5.1
6	타이어	183	58.1	2.3	109	36.3	1.6
7	칼라TV	249	1.6	2.3	106	21.8	2.2
8	아연도강판	189	75.4	1.8	85	11.1	1.7
9	기타플라스틱제품	166	21.1	1.6	75	6.3	1.5
10	운반하역기계	100	70.3	1.3	61	57.8	0.9

자료: KOTIS 통계, MTI 4단위 기준

3. 러시아 WTO 가입과 푸틴의 동북아 중시 정책은 한국에게는 기회 제공. 따라서 협력의 방향은 러시아 현대화 참여와 극동개발 협력이 핵심과제가 될 것임.

- WTO가입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 크지는 않으나 투자환경 개선 효과는 있을 것.
 - 5,052개 품목(HS 6단위 기준)중 '10년 기준 우리가 적용받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양허한 품목은 126개이고, 이들 제품의 우리나라 점유율은 1.57%에 불과.
 - 전자기기 부품류와 화물차의 경우는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증대가 전망되었으나 금년 상반기에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표 5] 참조).
- 푸틴의 동아시아 중시 정책에 대한 서방의 평가는 아직 긍정적이지는 않으나 극동 개발이 성공한다면 아시아 지역 강국으로 부상 가능
 - 러시아는 90년대부터 동아시아에서 국제협력의 다자틀 참여 확대. ARF, ASEAN, ASEM에 차례로 가입했으며 2011년 11월에는 처음으로 EAS에도 참석. 푸틴 신정부도 동아시아 중시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 그러나 러시아의 이러한 아시아 정책에 매우 부정적 시각이 서구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 짜간코프(A. Tsygankov, 2010)는 축소된 탈소비에트 국가를 위장하기 위해 사실은 유럽에 초점을 두면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보임으로서 글로벌 파워의 위상을 보여주려는 러시아의 전략이라고 러시아의 아시아 정책을 폄훼. 최근 중러관계 발전도 미국을 견제하

는데 의견을 같이하는 것이 강한 것이지 지역 공유 이익의 확대라 보기 어렵다는 견해.

- 블랭크(S. Blank)도 러시아의 중국과의 협력은 주로 글로벌 차원의 반미이지 지역적 차원은 아니라고 주장.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많은 제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지역통합은 경제적, 정치적, 안보,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 지역은 갖고 있는 역사적 유산, 영토문제, 이념 문제 등으로 하여 주로 경제적 통합만이 주로 논의되고 있음. 러시아의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연계성은 아직 미약함.
- 러시아가 아시아 이웃들과의 연계성을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다자기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러시아 극동이 “러시아의 동아시아의 창”이라는 인식이 이웃국들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보다 개발에 적극성으로 보여야 하며 국내 경제의 현대화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며 특히 현대화의 외국 참여에 보다 개방적이어야 함.

■ 러시아 극동개발에서 한러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교 대상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전략적 위상과 의미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할 것임

-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공유 이익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의 명확한 합의가 없었음.
- 남북러가스관 사업 등의 러시아 극동개발이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을 과도하게 증대시킬 수가 있음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음.
- 러시아를 우리에게 유리한 영향력을 북한에게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국으로 보느냐(소극적 포용), 아니면 러시아 극동지역이 남북러 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동북아에 통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러시아를 수용할 수 있는 대상국으로 보느냐(포괄적 포용), 더 나아가 한국이 장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동북아 신질서 형성의 핵심국으로 보느냐(거시적 지역 질서 포용)하는가에 대한 중장기 외교전략적 인식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한·러관계 발전 침체의 근본적 원인임.
- 동북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지역주의 형성의 여러 제약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러시아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동북아에너지 공동체 형성 장기적으로는 통일 후 동북아 다자안보 질서 형성에서 통일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의 대상으로서의 인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 또한 북한 변화에 따른 전략적 협력 수준 결정보다는 북한 변화를 유도하는 동북아 체제 형성이 고려되어야 함.

[표 6] 러시아 WTO 가입 계기 한러경제협력 과제

추진전략	핵심 추진과제
① 주요 국책사업 진출	◇ 에너지 효율화사업(전력망 현대화, LED 수출 등) ◇ 의료 현대화 사업(의료기관 진출지역 선정 등) ◇ IT 정보화 구축사업(전자정부, IT 시스템 등) ◇ 건설·인프라 사업(극동·시베리아 지역개발 등)
② 핵심 산업협력 강화	◇ 과학·기술 분야(나노펀드 확대, 스킨코보 진출 등) ◇ 에너지·자원 분야(극동·시베리아 자원개발 협력)
③ 물류산업 진출 확대	◇ 농수산 분야(극동지역 농수산 진출 및 협력 등) ◇ 북극항로 등 물류망 개척(북극지역 자원개발 목적) ◇ 물류환경 개선사업(철도·항만·항공 수송 확대)

④ 협력 지원인프라 확충	◇ BEPA 등 제도기반 구축(지재권, 통관 협력강화 등) ◇ 정보·금융지원 체계 정비(기업·은행·정부간 협력)
---------------	---

자료: 대외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 2012. 7. 16

- 대러 경제협력의 과제는 러시아 현대화 국책사업 참여와 극동 개발 및 물류 산업 진출임
- 러시아 경제 현대화를 위한 5대 핵심산업을 ① 에너지 효율화(신재생에너지 등) ② 원자력 기술 ③ 우주기술 ④ 의료기술(진단장비 및 의약품) ⑤ 전략정보기술(수퍼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정보기술) 등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중 에너지 효율화, 의료 현대화, IT 정보 구축 사업이 주요 협력 과제임.
- 핵심 산업협력 중 극동 개발과 관련된 것은 극동 에너지 개발과 농수산 분야(농공 클러스터) 등임.

4. 한러경협은 정치경제학적 접근 필요: 경제협력을 매개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편익과 비용 뿐 아니라 정치·외교·안보적인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평가하여 상호 호혜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구상할 필요

1] 현재 정부주도로 한러 경협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가장 가능한 프로젝트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임.

- 가스관의 북한 리스크가 있고 현재 경색된 남북한 관계에서 볼 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협력구상과 유라시아협력구상 구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가스관이 오히려 북핵 해법이며 경제협력을 통한 북핵위기 해소라는 우회 전략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
- 가스관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 비용은 러시아가 부담하여 우리가 안고 있는 리스크는 가스공급 가격, 가스공급 중단 가능성 외에 사실상 크지 않음.
- 셰일 가스 등을 근거한 지나치게 가격 측면에 얽매인 논쟁은 더 큰 국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2] 한러경제협력의 단·중·장기 로드맵이 있어야 함.

- 러시아의 시장실패 요인 때문에 시장에만 의존하는 경협은 한계를 보임.
- 또한 한러간에 논의되어 온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 연구가 부족하여 정책결정자나 기업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 양국의 여러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로드맵 연구가 꼭 필요하며, 전문성과 연구 자원 충당을 위하여 국제기구의 참여도 필요함.

3]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연계적인 협력 모형 필요.

- 자원과 물류·교통, 농업과 공업의 클러스터 등 다수의 사업들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추구하기 위한 패키지 전략. 프로젝트의 정치, 외교, 안보적인 영향력도 고려할 필요.
- 국제기구와의 연계전략. 예를 들어 EBRD는 러시아내 최대 투자자(연간 20억 유로 규모)로

서, 러 극동지역 내 병원, 항만 현대화 사업에 한국과 공동 참여 희망 피력. 공동 참여시 투자안정성, 신뢰성 확보 가능.

- PPP를 통한 재원충당. 러시아가 투자 리스크가 아직 크기 때문에 민관 재원 협력 필요.

4 신정부에서 success story 만들 것.

- 한러 양국은 경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 대해 피로감을 갖고 있으며,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임.
- 한국민과 러시아인 모두에게 국가 이미지는 아직 그리 긍정적이지 못함(부록 19 참조).
- 양국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 필요.

5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유라시아협력확대정책은 3각 협력으로 구체화할 필요

- 유라시아의 지리적 범주는 범위가 너무 넓어 정책을 구체화하기 어려움. 유라시아와 ASEAN 및 EU(중양아시아 포함)와의 3각 협력 논의도 있으나 구체적 사업이나 의제 개발이 쉽지는 않음.
- 이제까지의 한러 정상회담 의제는 대부분이 양자협력 사업들이었으며 최근에는 여기에 CIS 구성국들과의 협력을 포함한 유라시아 협력 체제를 모색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 아젠다 개발은 쉽지 않음.
- 3각 협력 가능국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는 구소련 국가(중양아), 북극개발에 관심 있는 유럽국(예를 들어 프랑스), 중국과 국경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 인도 등이 해당됨. 3각협력이 성공한다면 다자협력으로 발전 가능할 것임.
- 러시아가 한국 참여를 원하고 있는 나진항 3호 터미널 현대화의 경우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볼 때는 지분 참여가 어려울 것이나 북동항로에 관심이 있는 프랑스나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의 공동 참여를 러시아와 함께 노력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6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활성화 필요. 특히 지방정부는 중소기업 차원의 협력 채널 확대해야 함

- 그간 한국과 러시아는 국가간 관계의 발전에 발맞추어 양국 지방정부 간에도 자매 및 우호 교류협정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 협력을 맺어 왔음. 1991년 7월 13일 서울시와 모스크바시 자매결연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 8개 특별시.광역시, 10개 도, 그리고 19개 시.군.구가 러시아 지방정부와 20개의 자매결연(sisterhood relationship)과 16개의 우호도시(friendship city) 체결, 그리고 1개의 교류협력 각서를 체결하였음.
- 지방정부가 철도나 에너지 같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경제교류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중소기업 교류임. 이를 위해 양 지방정부가 공동의 웹 사이트를 만들어 정보나 전문성 그리고 비즈니스 채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간 교류를 도와야 함. 또한 농업분야 교류는 지방정부가 잘 할 수 있는 교류분야임. 이런 측면에서 경상남도가 연해주와 다방면의 농업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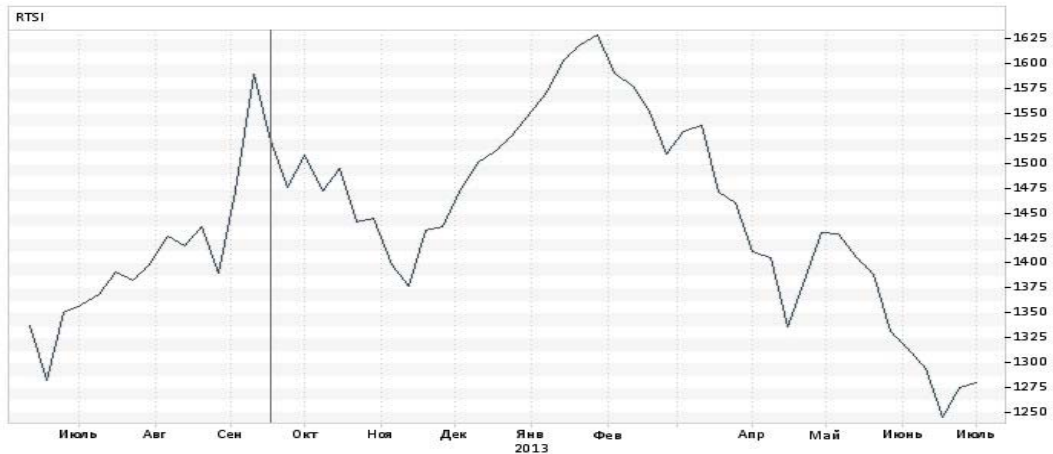
1. 러시아 외환 보유고 (단위: 백만 USD, 2013년 6월 현재)

날짜	국제 리저브	그 중에서:				
		외환보유고	그 중에서:			금
			외환	SDRs	IMF 리저브	
01.01.2013	537,618	486,578	473,110	8,741	4,727	51,039
01.02.2013	532,155	480,195	466,598	8,767	4,831	51,960
01.03.2013	526,172	475,650	462,372	8,616	4,662	50,522
01.04.2013	527,708	477,267	464,126	8,528	4,614	50,441
01.05.2013	533,218	486,350	473,121	8,584	4,645	46,868
01.06.2013	518,431	473,393	460,435	8,525	4,432	45,039

2. 러시아 국부펀드

날짜	10억 USD	10억 루블	GDP대비 %
01.07.2013	86,47	2 828,23	4,3%
01.06.2013	86,72	2 739,33	4,1%
01.05.2013	87,27	2 727,79	4,1%
01.04.2013	86,76	2 696,73	4,1%
01.03.2013	87,61	2 682,58	4,0%
01.02.2013	89,21	2 678,63	4,0%
01.01.2013	88,59	2 690,63	4,3%

3. 러시아 RTSI (2012년 6월~2013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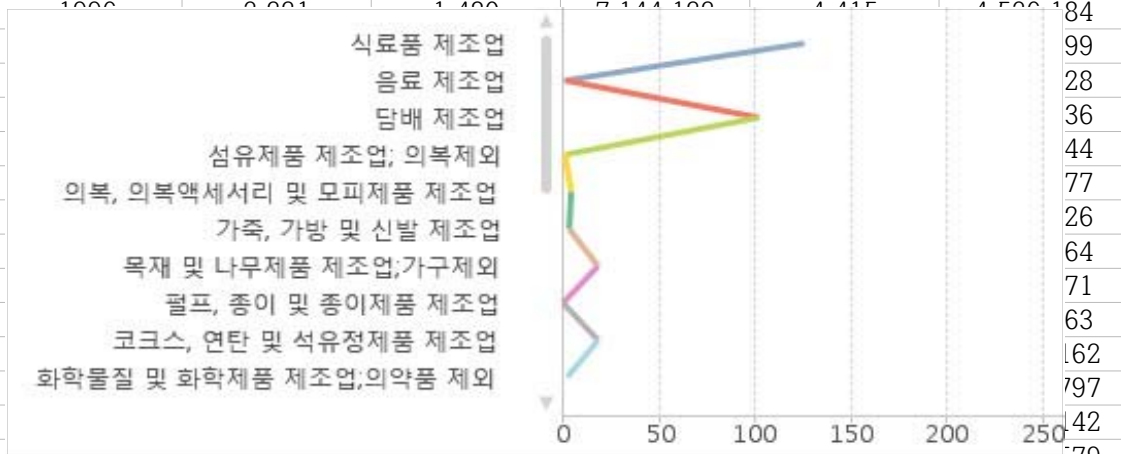


러시아 실업률

5. 한국의 대러 투자 통계(2013년 7월 10일 현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합계	121,602	54,628	334,569,155	204,112	220,454,750
1980	496	352	275,057	511	145,196
1981	103	50	322,543	89	56,995
1982	90	50	833,469	144	115,837
1983	91	57	143,019	172	168,913
1984	85	45	195,323	127	50,186

1985	70	39	219,390	125	112,966
1986	122	51	497,242	168	316,105
1987	171	91	367,360	219	409,616
1988	422	172	1,651,091	438	231,374
1989	649	270	976,784	701	571,358
1990	906	346	2,380,132	975	1,068,813
1991	893	450	2,021,160	1,265	1,319,257
1992	993	502	2,150,900	1,542	1,352,325
1993	1,527	693	2,210,024	1,768	1,450,339
1994	2,655	1,493	3,692,428	3,194	2,368,776
1995	2,507	1,345	5,327,602	3,500	3,219,676
1996	2,881	1,488	7,144,188	4,415	4,500,184
1997	3,021	1,522	7,177,117	4,818	4,579,579
1998	3,121	1,522	7,177,117	4,818	4,579,579
1999	3,121	1,522	7,177,117	4,818	4,579,579
2000	3,121	1,522	7,177,117	4,818	4,579,579
2001	3,121	1,522	7,177,117	4,818	4,579,579
2002	3,121	1,522	7,177,117	4,818	4,579,579
2003	3,121	1,522	7,177,117	4,818	4,579,579
2004	3,121	1,522	7,177,117	4,818	4,579,579
2005	3,121	1,522	7,177,117	4,818	4,579,579
2006	3,121	1,522	7,177,117	4,818	4,579,579
2007	3,121	1,522	7,177,117	4,818	4,579,579
2008	3,121	1,522	7,177,117	4,818	4,579,579
2009	3,121	1,522	7,177,117	4,818	4,579,579
2010	8,084	2,887	34,353,175	13,715	24,366,221
2011	7,861	2,760	45,530,749	13,340	26,490,836
2012	7,534	2,471	39,007,924	12,177	23,163,980
2013	1,837	651	7,026,682	2,780	5,408,007



7. 한국의 대러 업종별 투자 추이

8. 한국의 대러 업종별 투자 누계 현황 (단위: 건, 천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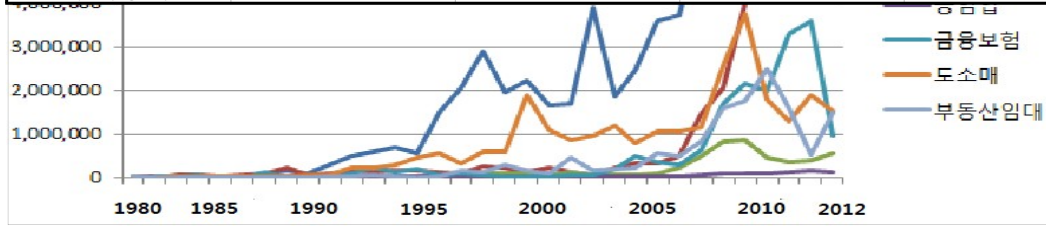
업종	비중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제조업	59.7%	146	1,193,366
도매 및 소매업	12.5%	89	249,099
광업	7.8%	9	156,257
농업, 임업 및 어업	6.9%	58	137,9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3.8%	25	76,216
기타	9.3%	127	185,311
계	100%	454	1,998,169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2013년 6.24일 기준)

9.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 추이 (단위: 건, 천USD)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도착건수	도착금액
1990	1	200	-	-
1991	5	711	3	402

1992-2000	109	10,233	82	5,848
2001-2005	137	7,309	101	5,888
2006	33	2,314	25	2,113
2007	38	2,526	26	1,932
2008	64	16,001	47	13,000
2009	32	1,466	25	1,276
2010	52	5,054	30	4,328
2011	49	8,764	38	6,596
2012	55	95,159	46	6,481
누적총계	575	149,737	423	47,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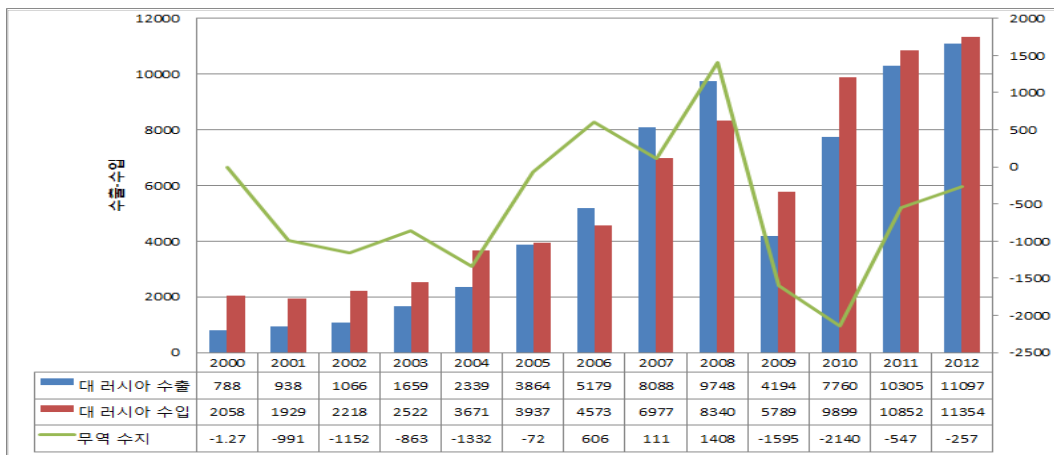
10. 한국의 대러업종별

투자 누적액

11. 대러 주요 대규모 투자 사례

	1997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
사 례	롯데플라자	한국야쿠르트 오리온제과	LG전자	롯데호텔	삼성전자	현대차 롯데제과 KT&G
투자비	롯데플라자(\$1.4억), 한국야쿠르트(\$3천만), 오리온제과(\$1.3억), LG전자(\$1.5억), 롯데호텔(\$2.9억), 삼성전자(\$2.3억), 현대차(\$4억), 롯데제과(\$8천만), KT&G(\$1억)					

12. 한러교역추이



13. 대러 10대 수입 품목(단위: 백만 USD, %)

구분	품목명	2012년			2013년(1~5월)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총계	11,354	4.6	100	4,930	9.8	100
1	원유	3,905	6.6	48.8%	2,406	73.4	34.4%
2	나프타	1,790	93.9	11.2%	551	-30.8	15.8%
3	유연탄	1,355	-12.3	10.7%	529	-6.6	11.9%
4	알미늄 및 스크랩	840	9.2	5.3%	263	-23.2	7.4%
5	천연가스	848	-19.5	4.3%	211	-52.3	7.5%
6	고철	392	-18.6	2.8%	140	20.6	3.5%
7	무연탄	218	-7.9	2.1%	102	33.9	1.9%
8	명태	222	-9.3	1.7%	82	-15.9	2.0%
9	우라늄	168	-39	1.6%	80	119.7	1.5%
10	합금철	174	-3	1.5%	74	-6.2	1.5%

14. WTO 가입 이후 한국의 對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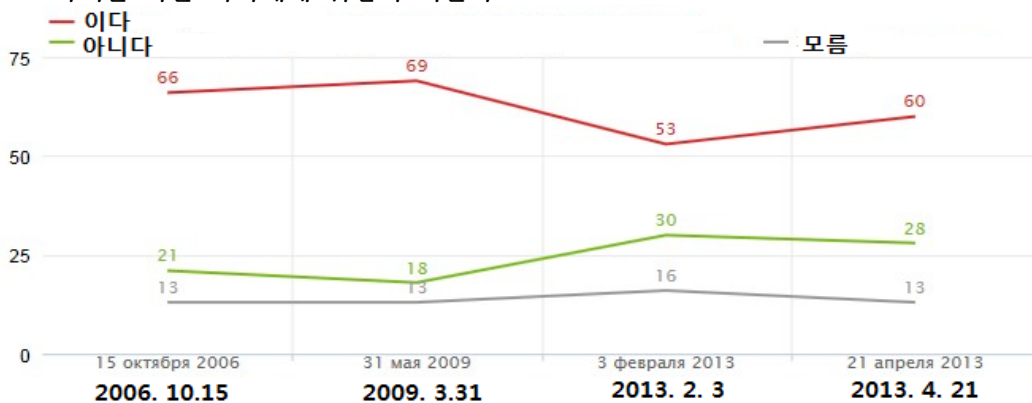
품목	실행세율	가입첫해	최종양허세율	이행완료시점
승용차	30%	25%	15%	2019년
자동차부품	5~15%	5%	0~10%	즉시~2018년
TV 부품	10%	10%	0	2015년
합성수지	5~10%	5~10%	4~6.5%	2013~2014년
냉장고	20%	20%	5~13%	2015~2017년
철강제품	15~20%	5~15%	5~7.5%	즉시~2015년
의료기기	10%	10%	5%	2015년
플라스틱	10~20%	10~20%	5.5~6.5%	2015~2017년
제지	15%	5%	5%	즉시
커피	15%	15%	10%	2016년
쥬스	15%	15%	8%	2015년
의류	10%	10%	5~8%	2014~2015년
가방	15~20%	15~20%	6.5~10%	즉시~2017년

15. APEC 2012에 제출된 2008-2020 투자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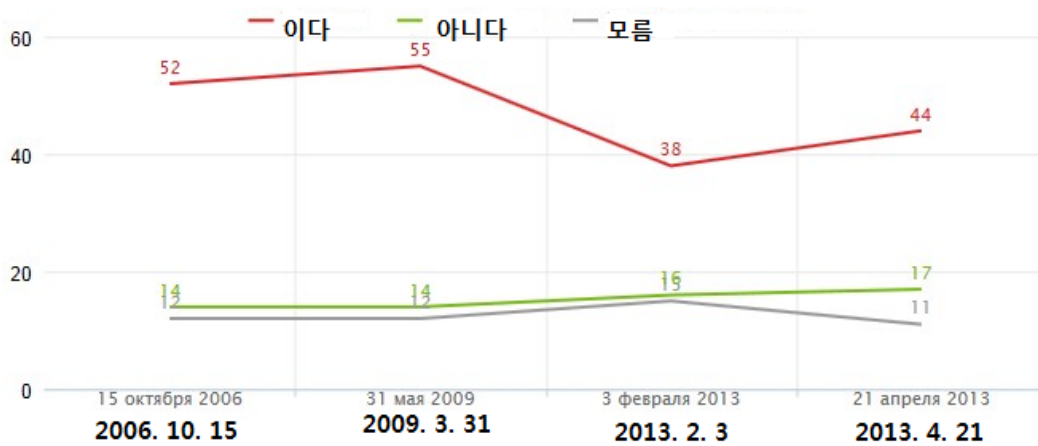
프로젝트	내용	투자규모(백만 루블)
연해주 조선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사 하에 "Far Eastern center of shipbuilding and ship repair"사를 연해주에 설립	819,555(민간 769,300/연방예산 50,255)
보스토치니항	연1,200만톤의 석탄컴플렉스 확충, 250만 TEU/년 처리 능력의 컨테이너 터미널 재건축, 50만 TEU/년 능력의 두 개의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민간 14,675
ESPO 송유관 - 연해주	연해주 스코보라디노-코즈미노만의 570km(6개의 oil pumping stations) 건설로 연해주 경제를 다각화하고 석유처리석유화학 산업단지 석유공급 목적	민간 20,000
석유처리/석유	연해주에 연7천만톤 석유제품 생산 능력의 단지 건	민간 780,000

화학 콤플렉스	설	
Kozmino 해양 석유환적 콤플렉스	ESPO 시스템 틀 속에서 석유 및 석유제품 환적을 위한 현대적 인프라 건설. 1차에 연 천5백만톤 2차로 5천만톤으로 처리능력 증대	민간 9,600
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관	연 45억입방미터 수송능력의 가스관 건설. 향후 한국, 일본, 대만, 미국 태평양 연안, 중국으로 LNG 수출 계획.	민간 50,000
알루미늄 공장	연해주에 아태지역 알루미늄 시장 진출 목적. 연 60만톤 생산	민간 58,531
연해주핵발전소	연 3 000 MWt or 21.1 bin. kWt/h 규모의 핵발전소	국가 25,333
우수리스크 수력발전소	360MWt의 수력 발전소	민간 19,000
500kv의 고압선	연해주 전력 수요 70%가 집중되어 있는 남부연해주 지역에 전력선 연결	-
전원 및 열공급	통합전력시스템 구축으로 연해주 전력 수요 증가 대비	1 8 9 , 3 1 5 (민 간 11,839.4/ 연방예산 7,092.1)
블라디보스톡 물공급 시스템 개선	두 개의 하수 펌프 스테이션 건설	3,738(연방예산 2103/지역예산 1635)
블라디보스톡 제3수도관 사업	65km 길이로 최대 1 200 mm -180 thousand m3/24 hours	1,307(연방예산 915/지역예산 392)
연해주 물공급 시스템 개선사업	푸쉬킨스코에 펌프장에서 "Krasnye kazarmy"펌프장까지 37km, "Krasnye kazarmy"펌프장에서 루스키섬까지 63km 길이 수도관 건설	6,777(연방예산 4740/지역예산 2037)
블라디보스톡 쓰레기 하치장	9ha의 쓰레기 하치장	1,104.7(연방예산 772.9/지역예산 331.8)
쓰레기처리 콤플렉스	40.5ha 규모 연 30만톤 처리	1,405.1(연방예산 918.5/지역예산 4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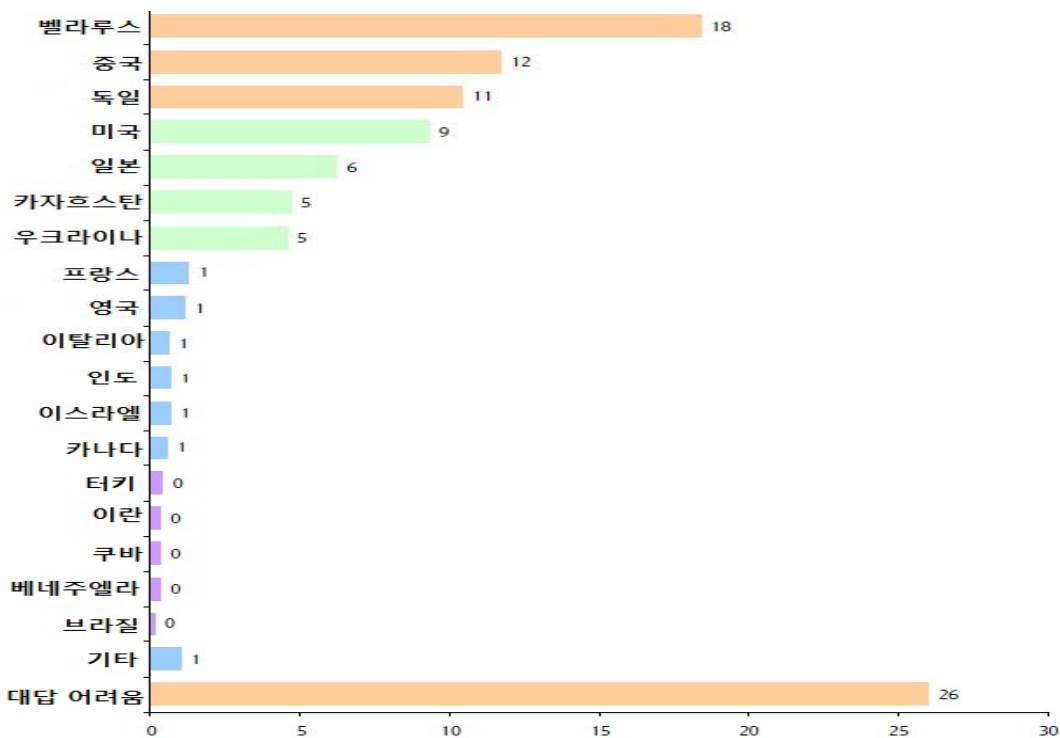
16. 북핵은 다른 나라에게 위협이 되는가?



17. 북핵은 러시아에 위협이 되는가?



18. 필요하고 가치 있는 파트너여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국가



Доминанты № 27 || 09.07.2009 || © Фонд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